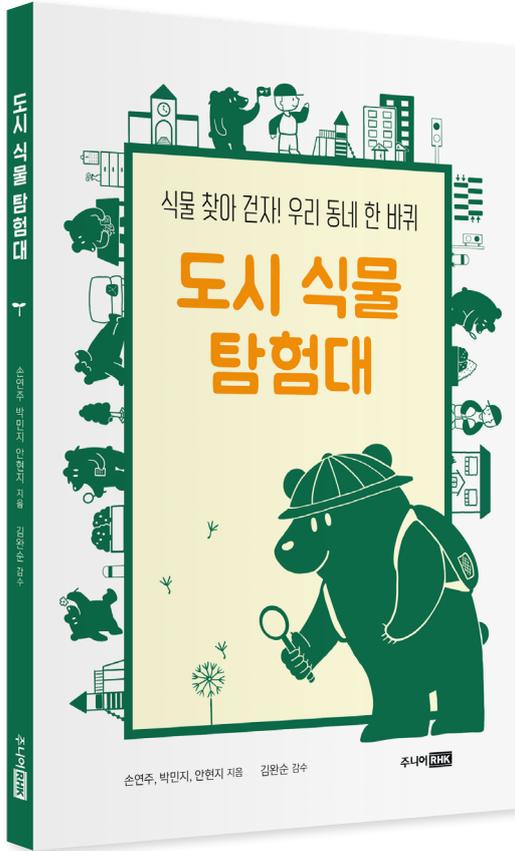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도시 식물 탐험대>

식물 전문가 저자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소설가 **정세랑**
식물 세밀화가 **이소영**
과학 저술가 **하리하라**
서울시립대 교수 **김완순**

도시 식물 탐험대 식물 찾아 견재! 우리 동네 한 바퀴

손연주, 박민지, 안현지 지음 | 김완순 감수 | 120쪽 | 11,000원 | 초등 전 학년 대상
ISBN 978-89-255-7837-8 (74480) / 978-89-255-2418-4 (세트)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통합교과(봄) 2. 도란도란 봄 동산

2-1 통합교과(봄) 2. 봄이 오면

2-2 통합교과(가을) 2. 가을아 어디 있니

4-2 과학 1. 식물의 생활

1-1 통합교과(여름) 2. 여름 생활

2-1 통합교과(여름) 2. 초록이의 여름 여행

4-1 과학 3. 식물의 한살이

6-1 과학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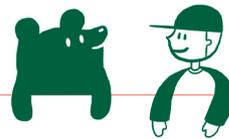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식물도감을 끝까지 읽어 본 적 있나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희처럼 식물을 공부하고 식물의 세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두꺼운 식물도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힘듭니다. 원래 식물도감이란 궁금한 식물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펼치는, 재미와는 거리가 먼 학술적인 책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좀 더 재미있게 식물을 알려 줄 도감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식물을 사랑하는 저자 3명이 모여 이 책을 기획했습니다. 재미있고, 쉽고, 무엇보다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식물도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도시 식물 탐험대》에는 식물에 관한 정보와 과학 지식, 다채로운 이야기거리가 가득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어른이 보아도 전혀 모자람이 없지요. 식물 박사 ‘웅’과 도시 식물 탐험 대원 ‘도토리’, 사랑스러운 두 캐릭터는 ‘만화’라는 장치를 통해 어린이들을 식물의 세계로 끌어들이 식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씨앗 등의 구조를 꼼꼼히 관찰해 한 페이지 안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린 세밀화, 식물 설명 곳곳에 담긴 소컷은 때로는 독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때로는 더 풍성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숲은 식물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에는 생각보다 많은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반가운 변화들을 가져다줍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깨끗하게 살아남는 식물을 보며 용기를 얻기도 하고, 계절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몸소 느껴 볼 수도 있지요. 식물에서 얻은 작은 사실 하나하나가 우리를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치던 길을 식물 탐험의 장소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 책을 통해 식물을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이라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방법임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손연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원예학을 공부한 뒤 지금은 푸른수목원에서 가드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랜선 식물 모임 ‘샐러드연맹’을 만들고 24절기 식물 뉴스레터, 식물 알람장을 공유하며 식물하는 삶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salad.yeonmaeng (샐러드연맹)

박민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원예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지리산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며 국립공원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현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원예학을 공부한 뒤 생명과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더 깊은 연구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션 1 : 도시의 식물은 어디에서 자랄까?



대원들! 식물이 사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숲? 바다? 혹시 숲은 식물이 사는 곳,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도시에도 많은 식물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도시의 식물은 어디에서 자라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① 위의 그림을 보면서 도시의 식물은 어디에서 자라는지 생각하고 빈칸에 써 봅시다.

② 식물은 어떻게 이곳으로 찾아온 걸까요? (발도 달리지 않았는데 말이예요!) 마음껏 상상해 적어 보세요.

미션 2 : 식물의 학명을 찾아라!



나라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의 이름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적인 이름을 '학명'이라고 해요. 학명은 속명과 종소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속명과 종소명의 뜻을 알면 식물의 특징을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아래 식물들의 학명은 무엇일까요? 학명의 뜻을 보면서 식물과 학명을 바르게 짝지어 볼까요?

- *Solanum nigrum* 뜻풀이 nigrum: 검다
- *Stellaria media* 뜻풀이 stellar: 별
- *Viola mandshurica* 뜻풀이 viola: 보라색
- *Trifolium repens* 뜻풀이 trifolium: 세 개의 잎

*학명은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제비꽃 ●

● *Solanum nigrum*



별꽃 ●

● *Stellaria media*



토끼풀 ●

● *Viola mandshurica*



까마중 ●

● *Trifolium repens*

미션 3 : 나만의 식물 분류법



책상 위를 정리할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쓰임새나 생김새나 색깔별로, 즉 종류에 따라 가르는 것이죠. 이것을 '분류'라고 해요. 지구상에는 매우 다양한 식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는답니다. 꽃의 색깔, 식물의 쓰임새, 발견되는 장소, 잎의 모양, 한살이 등 식물을 분류하는 기준도 무척 다양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기준을 만들고 식물을 분류할 차례입니다.

① 나만의 분류 기준 정하기 **예시) 꽃 색깔, 잎의 모양, 식물의 한 살이, 꽃잎의 수 등**

② 책의 내용을 살피며 나만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아래의 식물들을 분류해 보세요.

괭이밥



코스모스



꽃다지



냉이



꽃마리



토끼풀



닭의장풀



맥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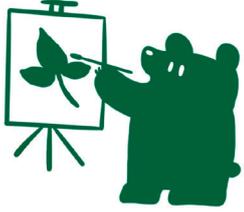
메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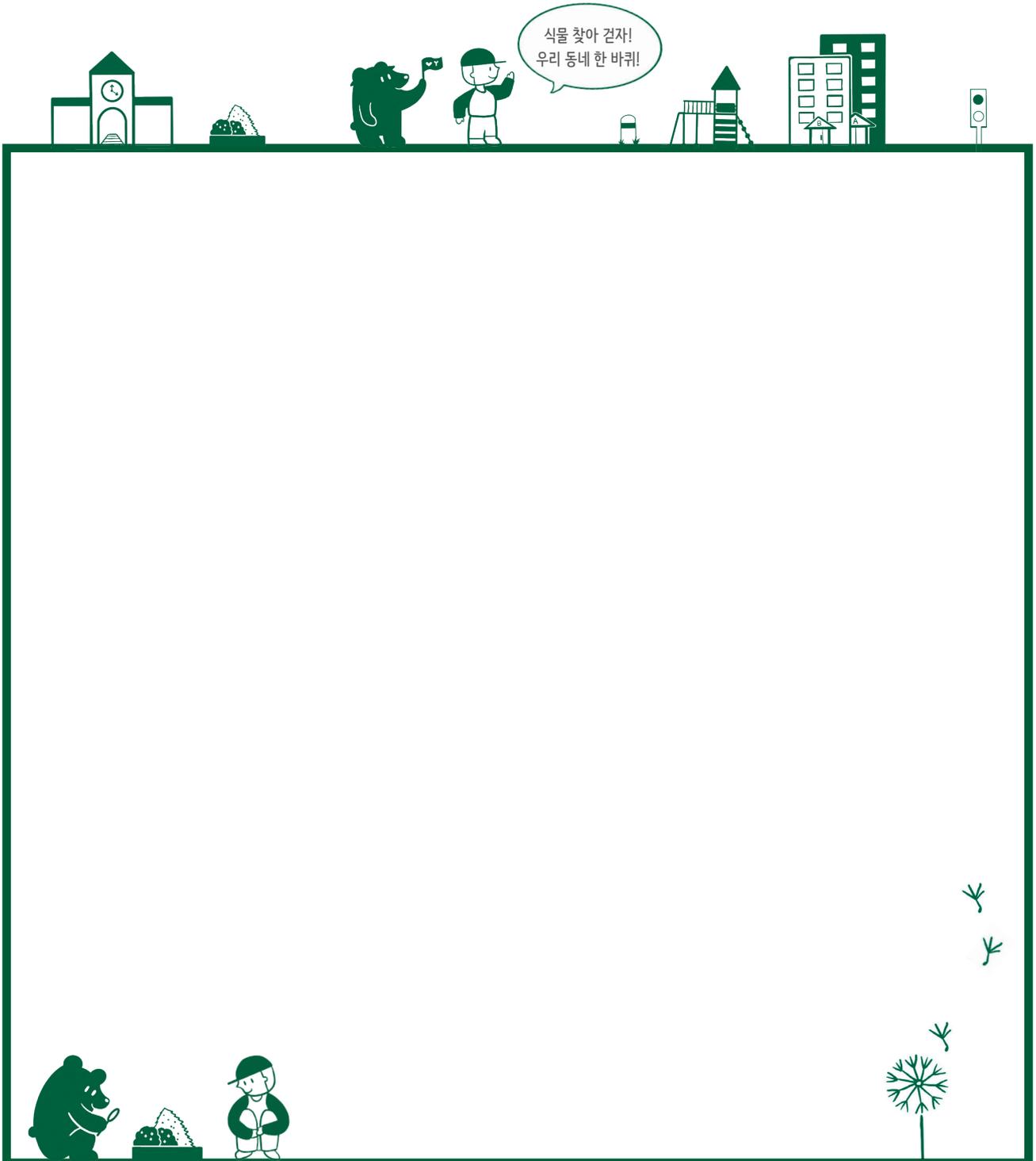
서양민들레



미션 4 : 우리 동네 식물 지도 만들기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는 어떤 식물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탐험을 떠나 보세요! 학교 가는 길, 산책길, 아파트 화단, 집 앞 골목, 어디든 좋아요. 어떻게 생긴 식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림지도로 그려 보세요. 식물의 이름을 안다면 이름을 써 주어도 좋겠죠?



미션 5 : 나만의 식물도감 만들기

우리 동네 식물 탐험, 즐거웠나요? 이제 탐험에서 만난 식물 중 하나를 골라 식물도감을 만들 거예요.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나만의 식물도감을 완성해 보세요!



식물도감 만드는 방법

- ❶ 단계 '식물 선택하기' 좋아하는 식물이나 특별히 알고 싶은 식물을 발견했나요? 어떤 식물인가요?
- ❷ 단계 '정보 모으기' 식물에 관해 어떤 정보를 넣고 싶은지 생각해요. 정보를 모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인터넷 또는 책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요.
- ❸ 단계 '기록하기' 식물에 관한 기본 사실을 비롯해 모은 정보들을 정리해요. 이때 식물을 그리거나 식물을 찍은 사진을 꼭 붙여요. 도감의 사전적 의미는 '그림이나 사진을 모아 식물 대신 볼 수 있도록 엮은 책'입니다.

· 식물 이름 : 코스모스

· 과명 : 국화과

· 학명 : *Cosmos bipinnatus*

· 꽃 피는 때 : 6~10월

식물 그림 또는 사진



· 식물의 특징

코스모스는 키가 1~2m 정도로 자란다.

· (신기한) 사실

신하케도 코스모스는 밤의 길이를 감지해 꽃 피울 준비를 한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지나면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꽃을 피운다.

· (재밌는) 사실

코스모스의 학명을 지은 사람의 직업은 '신부'라고 한다. 멕시코에서 코스모스를 처음 본 스페인 탐험가가 씨를 스페인으로 가져가 신부인 안토니오 호세 카바니에스에게 주었던 것! 사실 이 신부는 유명한 식물학자였다고 한다.

미션 6 : 도전! 식물 퀴즈



큰일 났어요! 위험에 빠진 식물들이 식물 탐험 대원 도토리에게 살아남는 법을 알려 달래요! 도토리는 과연 식물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모든 답은 《도시 식물 탐험대》에 들어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 개!

**식물의 생존법에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식물들은 환경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거든. 명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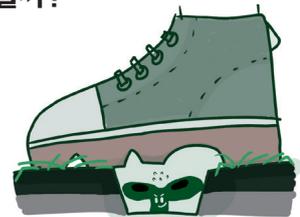
[퀴즈 1] 이곳은 숲. 이미 엄청나게 커 버린 나무들 때문에 빛이 거의 보이지 않아.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 ① 늦었지만 이제라도 높이높이 쑥쑥 자라서 빛을 받는다.
- ② 빛을 최대한 받기 위해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자란다.
- ③ 빛은 포기하고 곤충을 잡아먹어 영양분을 얻는다.
- ④ 적은 양의 빛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게 적응한다.
- ⑤ 이미 자란 나무의 영양분을 뺏는다.



[퀴즈 2] 여기는 보도블록 틈새. 흙이 한 줌도 없는 열악한 곳이야! 다른 식물 친구들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커다란 신발이 보도블록을 계속해서 쿵쿵 밟고 있어. 도토리, 어떻게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 ① 경쟁자가 없으니 마음 편하게 위로 쭉쭉 뻗으며 자란다.
- ② 밟혀도 끄떡없도록 납작하게 자란다.
- ③ 보도블록 틈새 안에서만 자란다.



[퀴즈 3] 난 위험한 환경에서 무사히 싹을 틔우고 잘 자라고 있어. 그런데 이를 어찌, 애벌레가 내 잎을 갉아 먹기 시작했어. 어떻게 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을 알려 줘!

- ① 앞에서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을 내뿜는다.
- ② 무서운 무늬를 만들어서 쫓아낸다.
- ③ 몸에 난 가시를 이용해서 애벌레를 다치게 한다.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미션 활동 설명서

어린이들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식물을 만날 수 있는지 알고, 밖으로 나가 우리 주위 곳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직접 탐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미션을 구성했습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아이에게 책을 소개해 주세요.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에는 생각보다 많은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곳곳하게 살아남는 식물을 보며 우리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계절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몸소 느껴 볼 수도 있습니다. 식물에서 얻은 작은 사실 하나 하나가 우리를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이 책은 식물에 관한 정보와 과학 지식, 다채로운 이야기거리를 풍성한 일러스트와 함께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쉽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식물도감이자 식물 탐험 안내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숲과 같은 자연이 아닌, 도시에 과연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궁금할 때
- 집 앞에, 학교 화단에, 길가에 피어 있는 식물 이름이 궁금할 때
- 기존의 식물도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 날마다 오고 가는 똑같은 길이 문득 지루하게 느껴질 때

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 도시의 식물은 어디에서 자랄까?

- 예시 답안: 지붕 위, 보도블록 틈새, 가로수 아래, 담벼락 아래, 맨홀 주위, 화단 등
도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무척 많습니다.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지나가는 길이나 자주 접하는 공간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만들레 흠씨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거나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하는 등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은 무척 다양합니다. 엉뚱한 생각이나 의견도 좋으니 아이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2 : 식물의 학명을 찾아라!

식물의 과학적 이름인 ‘학명’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학명은 식물의 잎, 열매, 꽃이 지닌 형태학적 특징이나 식물이 사는 곳의 기후, 위치, 식물을 발견한 사람 등 여러 특징을 의미하는 단어(라틴어)로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학명은 식물의 종이나 속, 과 등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제시된 학명과 뜻풀이를 보고 식물의 생김새나 이름을 살핀 뒤 바로 답을 찾아도 좋고, 책을 펼쳐 해당 식물의 이름이나 학명에 얽힌 재미있는 유래를 읽으며 답을 찾아도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미션 3 : 나만의 식물 분류법

아이들은 활동지에 제시된 예시 말고도 기발하고 재미있는 분류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장소나 날짜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지요. 자신만의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식물을 분류해 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술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아이들이 기준을 세운 뒤 그 기준에 맞게 식물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식물을 분류하다 보면 식물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게 될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4 : 우리 동네 식물 지도 만들기

밖으로 나가 우리 동네에는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관찰해 보는 활동입니다. 책에 실린 식물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책에는 없는 새로운 식물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학교(또는 학원)를 오가는 길과 같이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을 그린 뒤 그 길 위에서 발견하는 식물들을 표시해 보세요. 아이들은 매일같이 다니는 익숙하고 평범한 길이 식물 탐험 장소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식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도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 나만의 식물도감 만들기

한 식물을 선정하여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식물의 어떠한 점이 아이의 관심을 끌고 상상력을 자극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그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해 봅니다. 다른 식물도감이나 백과사전, 식물 관련 책을 참고해도 좋고 인터넷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정확하고 근거 있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가표준식물목록(<http://nature.go.kr/kpni>) 사이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6 : 도전! 식물 퀴즈

정답: [퀴즈 1] 1, 3, 4, 5 / [퀴즈 2] 2, 3 / [퀴즈 3] 1, 3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식물의 입장에서 생존 방법을 고민하는 활동입니다. 아래와 같이 오답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면 도움이 됩니다.

[퀴즈 1]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자라면, 어두운 숲에서는 빛을 받을 수 없다. 경쟁 식물이 없는 보도블록 같은 공간에서 가능한 생존 방법이다.

[퀴즈 2]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높게 자라면 발에 밟혀서 다치기 쉬운 환경이다. 그래서 보도블록에 사는 식물 대부분은 키가 작고, 밟혀도 다치지 않도록 잎도 질기다.

[퀴즈 3] 화려한 무늬는 대체로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식물의 신호이기는 하지만, 그 무늬 때문에 곤충이 도망가지는 않는다.

책을 읽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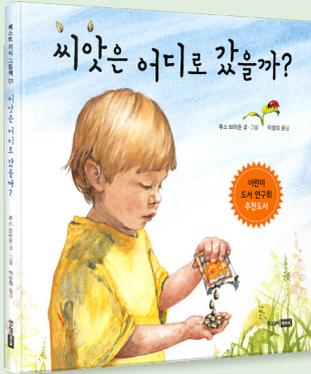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생태,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책들을 함께 읽어 보세요!



생명과 손잡기: 지구 환경을 지키는 생물 다양성

기후 위기 시대에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생물 다양성'의 의미와 역할부터 가치, 중요성, 행동 실천법을 단계적으로 알려 주어 생태 감수성을 길러 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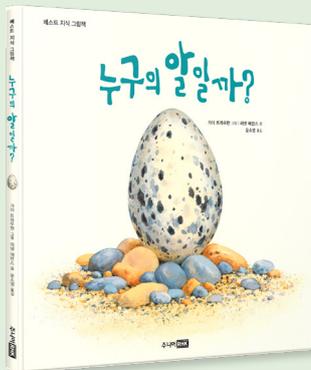
마틸드 파리 글 | 마리옹 티그레아 그림 | 정주연 옮김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

씨앗 열 개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탄생과 성장, 자연의 순환을 따뜻하고 역동감 있게 표현한 책.

루스 브라운 글·그림 | 이상희 옮김



누구의 알일까?

동글동글 알에서 태어난 어린 동물들의 이야기. 플랩을 들춰 누구의 알인지 생각해 보면서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첫 생태 그림책.

리넷 에반스 글 | 가이 트라우턴 그림 | 윤소영 옮김